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현황 분석*

- 장서의 주제별 분포 및 노후화 현황 -

Examining the Collection of Public Libraries in Terms of Subject and Currency

김선애(Sun-Ae Kim)**, 서혜란(Hye-Ran Suh)***

【초 록】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장서의 주제별, 연령별 소장현황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장자료의 주제별, 연령별 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 장서의 주제별 분포와 노후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국의 423개 공공도서관이 분석대상이었으며, 한국십진분류표(KDC)가 주제별 소장현황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었고, 자료의 출판연도가 소장자료의 최신성 혹은 노후화정도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공공도서관 장서는 주제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학과 사회과학의 비중이 전체 자료의 5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장서의 최신성은 비교적 우수하였으며, 2000년 이후 발간자료의 소장비율이 전체 자료의 64.9%를 차지하였다.

【키워드】

장서, 장서개발, 장서평가, 공공도서관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se the collections of public libraries in terms of their subject distribution and currency. It was expected that the analysis would give public librarians some suggestions as to their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making. This study team selected 423 Korean public libraries across the country and scrutinized the collections by their classes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KDC) and publishing years.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some subject disproportion in public library collections. Literature and social sciences were accounting for 54.8% of whole

collections. Currency of collections of public libraries could be said relatively excellent. It was found that 64.9% of whole collections had been published after 2000.

【Keywords】

Collection, Collection Development, Evaluation of Collection, Public Library

1. 서 론

장서관리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중심에 존재하는 핵심기능이다.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할 때야 비로소 공공도서관이 설정한 서비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 장서관리의 기본원칙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그들의 교육, 정보, 여가 및 개인적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자원을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Gill 2002).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564개관으로 전년도에 비해 50개관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 공공도서관의 총 장서수는 49,343,467책으로 2005년 대비 10.6%(4,084,848책) 증가하였으나, 1관당 장서 수는 87,488책으로 2005년에 비해서 오히려 564책(0.6%)이 감소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자료구매력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4년에 134억 원이던 국비부분의 자료구입비 지원이 2005년에는 96억 원, 2006년에는 75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서비스의 핵심인 자료구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운영의 부실화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 본 논문은 2008년도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용역보고서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실태조사 및 기본장서목록 연구”의 내용 중 4장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imsa@ks.ac.kr) (제1저자)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rsuh@silla.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09년 2월 20일 논문심사일자 : 2009년 2월 27일 게재확정일자 : 2009년 3월 2일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한국도서관연감 2007).

공공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자료구매력 감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중의 하나는 합리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입각한 장서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주제와 매체형태 면에서 균형을 갖추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서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장서관리 실태에 관한 현황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한국도서관연감』에서 집계되는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통계지표를 통해서 국내 공공도서관 장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통계지표는 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 연간증가 책 수(구입, 기증, 기타) 등 6개 항목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도 있는 소장자료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통계로는 확보할 수 없는 공공도서관 장서의 주제별 및 연도별 소장자료 비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도서관의 운영주체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리고 도서관 규모별로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협력적 분담수집과 특성화, 공동활용체계 구축 등 장서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초데이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소장자료의 노후화 정도와 불용도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의 보존서고 수요에 대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의 사명과 임무를 반영하여 실제로 도서관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도구이다. 좋은 장서개발정책이 곧 우수한 장서구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장서구성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도서관의 장서관리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장서개발정책과 전자출판물 수집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장서개발정책에 관련된 대부분의 논문들은 장서개발 정책이 왜 필요하며, 이를 성문화하는 것이 어떤 유익한 점이 있으며, 그리고 장서개발정책서에 포함되어야 할 요

소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장덕현(2007)은 과학기술분야 정보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정된 예산과 공간이라는 제약조건 속에서 최적의 정보자원을 입수함으로써 예산을 효율화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의 수립과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서개발정책은 장서의 선정을 돕고 선정업무에 있어서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는 도서관의 필수요소이고, 도서관의 모든 업무는 장서개발정책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류인석 1991; 안채현 2002, 장덕현 2007). 국내의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최근 연구의 경우, 이란주(2005)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도서관과 미국의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사례들의 특징과 조사항목 분석을 통해 장서개발지침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류인석(1991)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장서개발 지침 내용으로 선택자, 선택방법, 선택책임, 선택 기준 선택자료, 각 주제의 선택수준, 예산할당, 특수자료, 기증과 교환, 폐기, 자원분담, 정책과 지침 개정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도서관 장서로서의 전자자원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인쇄자료 위주의 장서개발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Hazen(1995)은 전통적 개념을 넘어 모든 유형의 정보자원과 원격자원 모두를 포함하는 장서개발 정책 수립을 주장하였고, Van Zijl(1998)은 장서개발정책을 위한 전자자원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장덕현(2007)은 정보자원의 수명이 짧고 수록매체상의 변화가 많은 과학기술분야 도서관정보센터에서 장서개발정책은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정보자원 선정을 위한 평가 범주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재욱(2003)은 대학도서관에서 그 장서를 디지털화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을 고찰함으로써 인터넷 자원이나 상업출판사로부터 일시적 접근을 통한 장서가 아닌 아카이빙 차원의 장서개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선희, 유수현(2008)은 디지털장서 개발정책 동향파악을 위해 국내의 국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하고, 디지털 정보자원의 영구적인 보존과 접근을 위해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내 도서관들이 디지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필요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는 특수장서 혹은 특성화 실태에 관한 연구가 전부이다. 박운자

(2006)는 국내의 공공도서관에서 구축 운영되고 있는 특수장서 현황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특수장서의 문화를 이해하고 특수장서개발 구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 조찬식(2008)은 공공도서관 경영전략의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의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특성화 사례를 조사하여, 자료중심의 특성화와 서비스중심의 특성화로 구분하여 특성화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소장자료에 대한 실태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소장자료 현황조사는 장서개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보다 효율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위해 지역사회분석 혹은 이용자 요구분석, 대출통계분석 등도 중요하지만 소장자료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 장서실태조사는 기존 소장자료에 대한 주제별 평가와 노후화 정도를 평가하는 작업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데이터 작성 작업이다.

3.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현황분석

3.1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주제별내역 및 소장자료의 연도별 구성비율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전체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원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한국도서관연감』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서관연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자료의 구분에 따른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현황, 단행본 내에서의 동양서와 서양서의 비중뿐이다. 이를 통해서도 전국의 공공도서관 장서구성의 주제별 내역, 연도별 구성비율 등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인 KOLIS-

NET²⁾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KOLIS-NET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개별 도서관에 대한 목록 데이터가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현재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최적의 데이터라는 생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보화 담당관실의 협조하에 KOLIS-NET의 개발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ECO와의 미팅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장서현황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였고, ECO는 2008년 7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KOLIS-NET에 참여하고 있는 632개 도서관의 소장자료 데이터를 제공해주었다. 확보된 데이터 중 본 연구의 취지에 맞지 않는 도서관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전문·특수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관종이 다른 도서관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전체 장서량이 1,000권 미만인 도서관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장서가 1,000권 미만인 경우는 도서관의 규모가 아주 소규모라기보다는 KOLIS-NET에 가입은 하고 있지만 목록데이터의 업로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KOLIS-NET의 활용이 거의 없는 도서관으로 추측되었다. 따라서 목록데이터의 현행성이 확보되지 않은 도서관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2007 한국도서관연감』에 수록되지 않은 신생도서관들을 제외하였다.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의 경우, 소장자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 분석대상이 된 공공도서관은 423개관이며, 이를 소속별로 살펴보면 교육청 소속이 215개관(50.83%), 지방자치단체가 204개관(48.23%), 기타 4개관(0.94%)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66개관(15.60%)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서울로 47개관(11.11%)이다. 이를 규모별로 구분하면, 대규모도서관과 소규모 도서관이 각각 118개관으로 27.90%를 차지한 반면 중규모 도서관은 전체 도서관의 46.23%인 183개관으로 나타났다.³⁾ <표 1>은 분석대상 공공도서관의 인구조계적 특성을 나타낸다.

- 2) 현재 KOLIS-NET은 전국의 526개 공공도서관에 설치되어 시스템 보급률이 93.26%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현행성, 즉 실제 단위도서관의 목록데이터와의 일치성, 포괄성 부분에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개별도서관에서 생산한 목록을 KOLIS-NET에 성실히 업로드 하지 않았을 경우, KOLIS-NET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개별 도서관의 목록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8년도 국가자료상호대차서비스인 '책바다'의 실시를 계기로 국립중앙도서관과 단위 도서관간 목록데이터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책바다' 서비스를 위한 점검과정에서 혹은 서비스 이후 나타난 실제 단위도서관의 소장목록과의 불일치사례를 통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었던 데이터에 대한 정비가 상당부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 3) 도서관의 규모를 구분하는 기준은 문화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도서관 평가를 위해 도서관을 그룹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도서관의 역할, 운영주체, 봉사인구의 3요소를 그룹핑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기준에 의거하여 교육청 대규모도서관, 교육청 중규모도서관, 교육청 소규모도서관, 자치단체 중앙 대규모도서관, 자치

〈표 1〉 분석대상 공공도서관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요인	도서관수	비율(%)
소속	교육청	215	50.83
	자치단체	204	48.23
	기타	4	0.94
지역	서울특별시	47	11.11
	부산광역시	23	5.44
	대구광역시	12	2.84
	인천광역시	10	2.36
	광주광역시	7	1.66
	대전광역시	12	2.84
	울산광역시	5	1.18
	경기도	66	15.60
	강원도	37	8.74
	충청북도	20	4.73
	충청남도	36	8.51
	전라북도	24	5.67
	전라남도	32	7.57
	경상북도	39	9.22
	경상남도	37	8.74
	제주도	16	3.78
규모	대규모	118	27.90
	중규모	183	43.26
	소규모	118	27.90
	기타	4	0.94

423개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 현황 분석은 크게 주제별 분석과 연령별 분석으로 대별된다. 주제별 분석에서는 KDC의 주제분류를 사용하여 국내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도서관의 운영주체별, 규모별 그리고 지역에 따른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과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연령별 분석을 통해서도 소장자료의 노후화 정도 혹은 최신성 정도를 파악하여 국내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운영주체별, 규모별 그리고 지역별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노후화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다.

3.2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 분석

공공도서관의 주제별 소장자료 현황분석은 KDC의 분류기준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소장자료를 10개의 대분류인 총류(000), 철학(100), 종교(200), 사회과학(300),

순수과학(400), 기술과학(500), 예술(600), 어학(700), 문학(800), 역사(900)로 구분하여 각 주제간 소장비율을 분석하였다. 423개 공공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분야는 문학류로 10개의 주제분야 중 37.87%이며, 두 번째는 사회과학으로 전체 장서 중 16.92%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역사 7.73%, 기술과학 7.50%, 예술 7.12%, 순수과학 6.54%의 순이었다. 주목할 사항은 1위 문학과 2위 사회과학과의 차이가 20.95%인 반면 2위 사회과학과 3위 역사의 차이는 9.19%였다. 공공도서관의 주제별 소장현황은 순위 간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주제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비중이 가장 낮은 주제분야는 종교로 3.07%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언어 3.75%, 총류 4.51%, 철학 4.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서 중 문학과 사회과학의 비중이 54.79%로 나머지 8개 주제분야를 합한 것(45.21%)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과학분야는 하위 4개 주제분야(종교, 언어, 총류, 철학)를 합한 16.32%보다 0.6% 높은 16.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학은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사회과학, 역사를 제외할 경우, 7개 주제분야(종교, 언어, 총류, 철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를 합한 37.48%의 점유율과 대등한 비중을 차지한다.

〈표 2〉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

구분 (KDC)	N	장서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비율 (%)	표준 편차
총류(000)	423	2,279	2470.279	4.51	1.09826
철학(100)	423	2,357	2186.671	4.99	1.03569
종교(200)	423	1,511	1567.893	3.07	1.11920
사회과학(300)	423	8,513	9646.866	16.92	3.10205
순수과학(400)	423	2,796	2328.048	6.54	1.92329
기술과학(500)	423	4,015	5230.341	7.50	2.35834
예술(600)	423	3,274	3035.116	7.12	2.54942
언어(700)	423	1,786	1759.023	3.75	1.40630
문학(800)	423	16,173	12643.248	37.87	6.83926
역사(900)	423	3,514	3092.895	7.73	1.23856
전체평균	423	46,218			

3.2.1 운영주체별로 본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 분석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이 운영주체에 따

단체 중앙 중규모도서관, 자치단체 중앙 소규모도서관, 자치단체 분관 대규모도서관, 자치단체 분관 중규모도서관, 자치단체 분관 소규모도서관, 기타의 10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바탕을 두고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사용한 요소 중에서 봉사인구를 기준으로 도서관의 규모를 구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봉사인구 50만 이상 대규모 도서관, 10만에서 50만 미만 중규모 도서관, 10만 이하 소규모 도서관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도서관의 규모를 구분하였다

라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를 구분하여 주제별 장서구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도서관 423개관을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교육청 소속도서관이 215개관(50.8%)이며, 자치단체 소속도서관이 204개관(48.2%), 기타 도서관이 4개관(1%)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운영주체별로 살펴본 공공

도서관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은 전체 공공도서관의 주제별 장서구성과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운영주체에 따른 어떤 특징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다.

운영주체에 따른 주제별 장서구성의 특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주제별 장서구성비율을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표 3〉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 운영주체별

운영주체	구분	총류 (000)	철학 (100)	종교 (200)	사회과학 (300)	순수과학 (400)	기술과학 (500)	예술 (600)	언어 (700)	문학 (800)	역사 (900)
교육청(N=215)	장서수	2,925	3,040	1,934	10,971	3,507	5,191	4,232	2,209	20,775	4,486
	%	4.58	5.12	3.01	16.75	6.24	7.59	7.45	3.51	38.00	7.75
자치단체(N=204)	장서수	1,629	1,672	1,089	6,041	2,091	2,835	2,313	1,368	11,581	2,540
	%	4.41	4.87	3.15	17.06	6.84	7.40	6.74	4.04	37.80	7.68
기타(N=4)	장서수	712	608	287	2,509	547	968	791	331	3,047	945
	%	4.51	4.99	3.07	16.92	6.54	7.50	7.12	3.75	37.87	7.73
전체평균(N=423)	장서수	2,279	2,357	1,511	8,513	2,796	4,015	3,274	1,786	16,173	3,514
	%	4.51	4.99	3.07	16.92	6.54	7.50	7.12	3.75	37.87	7.73

〈표 4〉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운영주체에 따른 주제별 장서구성비

	요인	평균(%)	표준편차	F	p	
총류(000)	운영주체	교육청	4.580	1.01046	1.975	.140
		자치단체	4.412	1.12985		
		기타	5.170	2.97896		
철학(100)	운영주체	교육청	5.123	.65896	4.605	.011
		자치단체	4.874	1.27750		
		기타	4.100	2.49828		
종교(200)	운영주체	교육청	3.012	.71049	3.173	.043
		자치단체	3.151	1.41855		
		기타	1.866	1.18561		
사회과학(300)	운영주체	교육청	16.747	3.02998	1.851	.158
		자치단체	17.061	3.08137		
		기타	19.417	6.66249		
순수과학(400)	운영주체	교육청	6.240	1.16098	5.346	.005
		자치단체	6.842	2.44003		
		기타	6.983	2.89744		
기술과학(500)	운영주체	교육청	7.591	2.24592	.361	.697
		자치단체	7.400	2.45509		
		기타	7.282	3.65245		
예술(600)	운영주체	교육청	7.446	2.72303	5.408	.005
		자치단체	6.739	2.17142		
		기타	9.142	6.58275		
언어(700)	운영주체	교육청	3.505	.97824	9.566	.000
		자치단체	4.038	1.70644		
		기타	2.467	.87833		
문학(800)	운영주체	교육청	37.999	6.01639	.512	.600
		자치단체	37.795	7.55737		
		기타	34.581	10.81681		
역사(900)	운영주체	교육청	7.752	.97972	2.256	.106
		자치단체	7.684	1.45652		
		기타	8.989	1.21259		

운영주체에 따른 장서구성 분석결과, 총류, 철학, 사회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역사의 7개 분야에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미미하지만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반면, 종교, 순수과학, 언어의 3개 분야에서는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였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본 공공도서관의 주제별 장서구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주제분야는 순수과학, 예술, 언어의 3개 분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수과학에 있어서는 교육청 소속도서관이 자치단체 소속도서관보다 0.6%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예술 분야 역시 교육청 소속도서관이 0.71%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한편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언어는 자치단체 소속도서관이 0.53%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3.2.2 규모에 따른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 분석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이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규모를 구분하여 주제별 장서구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도서관 423개관을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구분하면 대규모 도서관이 118개관(27.9%), 중규모도서관이 183개관(43.3%), 소규모도서관(27.9%)이 118개관, 기타 4개관(1%)이다.

도서관의 규모에 따른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분석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비중 있는 주제분야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10개의 주제분야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규모, 중규모 도서관일수록 사회과학, 기술과학의 비중이 높은 반면, 소규모 도서관일수록 문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를 보면, 사회과학의 비중이 대규모도서관 18.50%, 중규모 도서관 17.00% 소규모 도서관 15.16%로 도서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전체 주제분야에서 차지하는 사회과학의 비중 또한 줄어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술과학의 비중도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8.13%, 7.53%, 6.82% 순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문학의 비중은 도서관의 규모가 클수록 전체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즉, 사회과학과 기술과학에서의 현상과 반대현상을 나타냈다. 소규모도서관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공도서관의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40.83%로 나타났으며, 이를 대규모 도서관의 35.15%와 비교하면 5.68%라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도서관의 규모에 따른 주제별 장서구성의 차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도서관의 규모에 따른 ANOVA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주제분야는 총류, 사회과학, 기술과학, 언어 그리고 문학의 5개 분야였다. 한편 철학, 종교, 순수과학, 예술, 그리고 역사의 5개 분야는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2.3 지역별로 본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 분석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이 지역에 따라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지역을 구분하여 주제별 장서구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도서관 423개관을 16개 시도별로 구분하였다. 전체 도서관중 경기도가 66개관(15.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서울로 47개관(11.1%)이었다.

<표 5> 규모별로 본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

규모	구분	총류 (000)	철학 (100)	종교 (200)	사회과학 (300)	순수과학 (400)	기술과학 (500)	예술 (600)	언어 (700)	문학 (800)	역사 (900)
대규모(N=118)	장서수	3,543	3,545	2,346	13,914	3,940	6,559	4,856	2,792	22,395	5,114
	%	4.76	4.97	3.14	18.50	6.57	8.13	6.93	4.23	35.15	7.64
중규모(N=183)	장서수	2,144	2,202	1,435	7,795	2,757	3,738	3,094	1,720	15,481	3,368
	%	4.47	4.93	3.14	17.00	6.58	7.53	6.98	3.82	37.79	7.77
소규모(N=118)	장서수	1,278	1,469	835	4,429	1,788	2,004	2,055	931	11,471	2,227
	%	4.28	5.14	2.93	15.16	6.43	6.82	7.47	3.21	40.83	7.73
기타(N=4)	장서수	712	608	287	2,509	547	968	791	331	3,047	945
	%	5.17	4.10	1.87	19.42	6.98	7.28	9.14	2.47	34.58	8.99
전체평균	장서수	2,279	2,357	1,511	8,513	2,796	4,015	3,274	1,786	16,173	3,514
	%	4.51	4.99	3.07	16.92	6.54	7.50	7.12	3.75	37.87	7.73

〈표 6〉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규모에 따른 주제별 장서구성비

	요인	평균(%)	표준편차	F	p	
총류(000)	도서관 규모	대규모	4.755	.99816	4.312	.005
		중규모	4.473	1.08743		
		소규모	4.280	1.07556		
		기타	5.170	2.97896		
철학(100)	도서관 규모	대규모	4.970	.89343	1.995	.114
		중규모	4.934	1.16020		
		소규모	5.138	.87307		
		기타	4.100	2.49827		
종교(200)	도서관 규모	대규모	3.143	.79799	2.532	.057
		중규모	3.135	1.22506		
		소규모	2.933	1.19589		
		기타	1.866	1.18561		
사회과학(300)	도서관 규모	대규모	18.495	3.12230	28.290	.000
		중규모	16.993	2.91525		
		소규모	15.160	2.18041		
		기타	19.417	6.66249		
순수과학(400)	도서관 규모	대규모	6.566	2.20275	.228	.877
		중규모	6.578	1.95036		
		소규모	6.430	1.52821		
		기타	6.983	2.89743		
기술과학(500)	도서관 규모	대규모	8.128	2.82077	6.303	.000
		중규모	7.528	2.41037		
		소규모	6.821	1.36295		
		기타	7.282	3.65244		
예술(600)	도서관 규모	대규모	6.928	1.79606	1.975	.117
		중규모	6.981	1.97889		
		소규모	7.464	3.56194		
		기타	9.142	6.58275		
언어(700)	도서관 규모	대규모	4.227	1.10068	12.500	.000
		중규모	3.822	1.65975		
		소규모	3.212	1.01524		
		기타	2.467	.87832		
문학(800)	도서관 규모	대규모	35.146	6.37051	15.356	.000
		중규모	37.785	6.87416		
		소규모	40.831	5.90848		
		기타	34.581	10.81681		
역사(900)	도서관 규모	대규모	7.638	1.08894	1.655	.176
		중규모	7.766	1.35971		
		소규모	7.726	1.16992		
		기타	8.989	1.21259		

〈표 7〉은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을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주제별 구성에 있어 전반적인 지역별 특징을 보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경우에는 사회과학의 비중이 기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과학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서울(18.81%)과 가장 낮게 나타난 충북(15.00%)과의 차이는 3.81%

다. 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문학이 전체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기타 지역의 경우는 문학의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학의 비중이 가장 낮은 대구(31.60%)와 문학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전북(41.98%)은 무려 10.35%의 차이가 난다.

〈표 7〉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 지역별

지역	구분	총류 (000)	철학 (100)	종교 (200)	사회과학 (300)	순수과학 (400)	기술과학 (500)	예술 (600)	언어 (700)	문학 (800)	역사 (900)
서울(n=47)	장서수	4,903	4,140	2,682	16,944	4,541	7,508	5,787	3,385	25,947	5,981
	%	4.70	5.02	3.03	18.81	6.42	7.87	6.78	4.24	35.40	7.75
부산(n=23)	장서수	3,419	3,854	2,348	14,281	3,779	7,130	5,459	2,573	23,148	5,247
	%	4.55	5.26	3.16	18.77	5.75	8.84	7.84	3.76	34.64	7.44
대구(n=12)	장서수	3,491	3,533	2,617	12,213	3,506	6,960	4,666	3,080	18,575	4,990
	%	5.00	5.30	3.72	17.92	6.74	9.28	7.51	4.85	31.60	8.09
인천(n=10)	장서수	3,860	3,319	2,551	13,347	4,719	5,902	5,001	3,657	23,202	5,468
	%	5.30	4.38	3.31	18.16	7.12	7.86	7.20	5.07	33.76	7.85
광주(n=7)	장서수	3,379	3,980	3,040	14,793	4,924	9,102	4,755	2,853	23,835	5,227
	%	4.08	5.39	3.79	18.08	6.51	9.81	6.15	3.78	35.14	7.27
대전(n=12)	장서수	3,517	3,008	2,102	12,459	3,916	6,163	4,429	2,333	19,398	4,429
	%	5.12	4.63	3.19	17.79	6.79	7.60	7.03	3.96	36.47	7.41
울산(n=5)	장서수	2,500	2,623	1,634	9,800	3,287	4,429	5,278	2,110	18,598	4,273
	%	4.23	4.56	2.69	16.90	6.61	7.66	9.08	3.56	36.82	7.86
경기도(n=66)	장서수	2,330	2,187	1,581	8,208	2,452	3,862	2,786	1,723	13,891	3,084
	%	4.98	5.13	3.70	18.72	6.84	8.08	6.67	4.08	34.43	7.38
강원도(n=37)	장서수	1,581	1,817	1,028	5,941	2,312	2,699	2,538	1,141	14,552	2,789
	%	4.08	4.81	2.80	15.50	6.60	6.87	6.85	2.97	41.88	7.63
충북(n=20)	장서수	2,235	2,214	1,372	6,909	2,935	3,570	3,242	1,502	16,261	3,580
	%	4.77	5.07	2.99	15.00	6.66	6.88	7.54	3.31	39.65	8.15
충남(n=36)	장서수	1,854	1,977	1,194	6,374	2,739	2,717	2,635	1,451	16,303	3,175
	%	4.30	4.87	2.80	15.83	6.71	6.31	6.59	3.42	41.53	7.65
전북(n=24)	장서수	1,606	1,563	931	5,123	1,893	2,473	1,904	1,064	11,758	2,387
	%	4.35	4.98	2.73	15.21	6.76	6.53	5.75	3.26	41.98	8.44
전남(n=32)	장서수	971	1,204	773	3,678	1,438	1,679	1,577	861	9,192	1,730
	%	3.90	5.15	2.85	15.67	6.11	6.84	8.55	3.52	39.90	7.50
경북(n=39)	장서수	1,285	1,441	775	4,505	1,734	2,145	2,144	891	11,408	2,229
	%	4.33	4.96	2.67	15.47	5.98	7.22	7.47	3.36	40.79	7.74
경남(n=37)	장서수	1,715	2,025	1,081	6,811	2,699	3,029	3,188	1,566	15,813	3,298
	%	4.03	4.78	2.61	16.07	6.78	7.09	7.74	3.83	39.14	7.94
제주(n=16)	장서수	1,693	1,675	1,071	6,029	1,959	2,884	2,065	1,306	10,497	2,782
	%	4.96	5.22	3.83	17.46	6.72	8.61	6.74	4.30	33.77	8.40
전체(n=423)	장서수	2,278	2,357	1,510	8,513	2,795	4,015	3,273	1,785	16,173	3,514
	%	4.51	4.99	3.07	16.92	6.54	7.50	7.12	3.75	37.87	7.73
최고-최저(%)		1.4	.92	1.18	3.81	1.14	3.5	3.33	2.1	10.38	1.17

지역별로 장서의 특성화를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사회과학의 비중이 18.81%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의 경우는 기술과학의 비중이 9.1%로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울산은 예술분야가 차지하는 비중(9.08%)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역사 분야는 전북(8.44%), 제주(8.40%)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였다.

동일 주제 내에서 장서구성의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최고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과 최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을 비교하였다. 가장 차이가 많이 발생

하는 주제분야는 문학으로 10.38%였고, 사회과학 3.81%, 기술과학 3.5% 그리고 예술이 3.33%의 차이를 나타냈다. 각각의 주제분야가 전체 장서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최고 비중 지역과 최저 비중 지역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지역 간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 주제분야는 문학보다는 예술과 기술과학이다.

3.3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연령별 현황 분석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의 노후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노후화의 척도는 자료의 출판년도로 설정하였다. 즉 출판년도가 1980년 이전인 자료, 출판년도가 1980-1989년인 자료, 출판년도가 1990-1994년인 자료, 출판년도가 1995-1999년인 자료, 출판년도가 2000-2004년인 자료, 그리고 2005년 이후자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기준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출판년도가 2000-2004년인 자료가 전체 장서 중 40.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에 발간된 자료가 24.75%, 1995-1999년에 발간된 자료가 18.7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980년 이전 자료는 전체 장서 중 채 1%로도 안 되는 0.93%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에 발간된 자료를 비교적 최신자료라 한다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최신자료 비율은 전체장서의 64.94%로 매우 높은 편이다. 장서구성의 질적인 측면에서 자료의 최신성이 중요하지만 도서관이 지닌 자료의 전승 및 보존의 기능을 고려할 때 1990년 이전자료의 비율이 5.5%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해볼 과제이다 (표 8 참조).

3.3.1 운영주체별로 본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노후화 현황 분석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노후화 정도가 운영주체에 따라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를 구분하여 연령별 소장자료 현황을 분석하였다. 주제별 분석에서 사용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분석대상 도서관 423개관을 운영주체에 따라 교육청 소속도서관과 자치단체 소속도서관, 기타 도서관으로 구분하였다.

〈표 9〉는 운영주체를 구분하여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연령별 현황을 나타낸다. 2005년 이후 발간된 자료의 소장현황을 살펴보면 기타 도서관은 36.87%, 자치단체 소속도서관은 27.30%, 교육청 소속도서관은 21.78%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발간된 자료의 소장현황에서 기타 도서관과 교육청 소속도서관간에는 15.09%라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2000-2004년 발간자료의 소장현황을 보면 교육청 소속도서관은 39.12%인데 비해 자치단체 소속도서관은 41.69%로 상대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0년 이후 자료를 최신자료라 했을 때, 자치단체 소속도서관의 최신자료 비율은 68.99%로 교육청 소속도서관의 60.89%와 비교하면 장서구성에 있어 최신자료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최신자료에 대한 소장 현황과 달리 1990년 이전자료의 소장 비율에서는 교육청 소속도서관이 7.61%로 자치단체 소속도서관의 3.0%보다 두 배 이상의 수치를 나타냈다. 소장자료의 연령별 장서구성에 있어서 교육청 소속도서관과 자치단체 소속도서관의 차이는 운영주체에 따른 특징이라기보다 도서관의 설립년도에 의한 차이일 수 있다. 그 이유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자치단체 소속도서관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도서관이 많은 반면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은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된 도서관이 많기 때문이다.

주제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운영주체에 따른 연령별 장서구성의 특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별 장서구성비율을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표 10 참조).

운영주체에 따른 장서의 노후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카테고리는 1980년 이전자료와 1980-1989년 사이에 발간된 자료, 그리고 1990-1994년에 발간된 자료였다. 그 밖의 카테고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 카테고리의 특징적 요소는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운영주체 간 평균차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표 8〉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연령별 현황

출판년도	N	장서수(평균)	표준편차	평균 비율(%)	표준편차
1980년 이전	423	761	2894.34	0.93	2.07365
1980-1989	423	3,391	7683.75	4.57	7.80110
1990-1994	423	6,386	8969.56	10.71	54.08904
1995-1999	423	10,266	11702.38	18.77	41.89941
2000-2004	423	17,363	14397.13	40.19	53.81001
2005년 이후	423	7,994	7430.33	24.75	30.59271
기타(불명)	423	98	199.69	0.20	.35591
전체평균	423	46,260	42691.83		

〈표 9〉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연령별 현황: 운영주체별

운영주체	구분	1980년 이전	1980-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년 이후	기타(불명)
교육청(N=215)	장서수	1190	5,270	8,352	12,484	21,803	10,014	106
	%	1.22	6.39	12.40	18.75	39.12	21.78	0.16
자치단체(N=204)	장서수	305	1,436	4,393	8,098	12,986	5,985	90
	%	.52	2.48	8.88	18.97	41.69	27.30	0.24
기타(N=4)	장서수	970	2,086	2,340	1,604	1,884	1,843	13
	%	5.87	13.24	13.53	9.38	20.88	36.87	0.22
전체평균(N=423)	장서수	761	3,391	6,386	10,266	17,363	7,994	98
	%	0.93	4.57	10.71	18.77	40.19	24.75	0.20

〈표 10〉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운영주체에 따른 연령별 장서구성비

		요인	평균	표준편차	F	p
1980년 이전	운영주체	교육청	1.224	2.3383	19.021	.000
		자치단체	.521	1.2036		
		기타	5.871	8.0700		
1980-1989	운영주체	교육청	6.390	6.5945	28.638	.000
		자치단체	2.477	4.1453		
		기타	13.243	19.8992		
1990-1994	운영주체	교육청	12.400	10.2981	5.987	.003
		자치단체	8.881	10.7344		
		기타	13.530	13.1719		
1995-1999	운영주체	교육청	18.754	10.9372	.852	.427
		자치단체	18.970	17.6395		
		기타	9.375	10.1351		
2000-2004	운영주체	교육청	39.117	14.4622	3.174	.043
		자치단체	41.693	22.2461		
		기타	20.884	10.1001		
2005년 이후	운영주체	교육청	21.774	17.4668	3.799	.023
		자치단체	27.296	26.3510		
		기타	36.873	36.2534		
기타	운영주체	교육청	.164	.2677	2.518	.082
		자치단체	.241	.4207		
		기타	.221	.2902		

3.3.2 규모별로 본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노후화 현황 분석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노후화 정도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규모를 구분하여 연령별 장서구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주제별 분석에서 사용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분석대상 도서관 423개관을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 도서관(118개관), 중규모 도서관(183개관), 소규모 도서관(118개관), 그리고 기타 도서관(4개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장 최신자료인 2005년도 이후 발간자료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규모 도서관으로 25.16%인 반면, 2000-20004년 발간자료의 소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규모

도서관으로 49.44%였다. 비교적 최신자료라 할 수 있는 2000년 이후 발간자료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규모 도서관이 72.91%, 중규모 도서관이 67.1%였으며, 소규모 도서관은 최신자료에 대한 비중이 62.33%로 이들 도서관들과 크기는 10.58%의 차이가 있다.

2000년 이후 발간자료의 소장현황과 달리 1990년대 발간자료의 소장 비율을 살펴보면, 규모 간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최신자료의 소장현황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1990년대 발간자료의 소장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최신자료의 비율이 가장 낮은 소규모 도서관으로 31.45%였다. 1990년 이전에 발간된 자료의 소장 비율에서는 최신자료의 소장 비율이 낮은 소규모 도서관이 6.82%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한 반면 중규모 도

서관은 4.39%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결과를 종합하면, 규모가 큰 도서관 일수록 최신자료의 비중이 높은 반면 규모가 작은 도서관은 최신자료보다 2000년 이전 자료의 소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도서관의 규모에 따른 소장자료의 연령별 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12>는 도서관의 규모에 따른 ANOVA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에 의하면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소장자료의 연령별 현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카테고리는 1980년 이전에 발간된 자료와 1980-1989년에 발간된 자료였다. 그 밖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자료의 연령별 소장현황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른 동질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연령별 현황: 규모별

규모	구분	1980년 이전	1980-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년 이후	기타(불명)
대규모(N=118)	장서수	1,662	6,443	9,513	16,000	24,615	11,070	272
	%	1.17	5.30	9.74	19.65	49.44	23.47	0.27
중규모(N=183)	장서수	508	2,478	5,986	9,216	17,346	8,250	86
	%	0.77	3.62	10.70	17.64	41.94	25.16	0.19
소규모(N=118)	장서수	258	1,853	4,095	6,584	10,762	4,822	46
	%	0.77	5.05	11.62	19.83	37.83	24.50	0.15
기타(N=4)	장서수	970	2,086	2,340	1,604	1,884	1,843	13
	%	5.87	13.24	13.53	9.38	20.88	36.87	0.22
전체평균(N=423)	장서수	761	3,391	6,386	10,266	17,363	7,994	98
	%	0.93	4.57	10.71	18.77	40.19	24.75	0.20

<표 12>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규모에 따른 연령별 장서구성비

출판연도	요인		평균	표준편차	F	p
1980년 이전	도서관 규모	대규모	1.169	2.4279	9.173	.000
		중규모	.772	1.8103		
		소규모	.773	1.3767		
		기타	5.871	8.0700		
1980-1989	도서관 규모	대규모	5.298	6.8592	5.062	.002
		중규모	3.617	5.3001		
		소규모	5.054	5.5163		
		기타	13.243	19.8992		
1990-1994	도서관 규모	대규모	9.737	9.3548	.700	.552
		중규모	10.698	10.8366		
		소규모	11.617	11.5658		
		기타	13.530	13.1719		
1995-1999	도서관 규모	대규모	19.648	15.0307	1.278	.282
		중규모	17.637	13.9990		
		소규모	19.829	14.9506		
		기타	9.375	10.1351		
2000-2004	도서관 규모	대규모	40.442	18.9639	2.607	.051
		중규모	41.936	19.0157		
		소규모	37.831	17.8196		
		기타	20.884	10.1001		
2005년 이후	도서관 규모	대규모	23.472	21.7462	.530	.662
		중규모	25.163	22.2023		
		소규모	24.501	23.4576		
		기타	36.873	36.2534		
기타(불명)	도서관 규모	대규모	.266	.4880	2.106	.099
		중규모	.189	.2799		
		소규모	.154	.2807		
		기타	.221	.2902		

3.3.3 공공도서관 장서의 노후화 현황 분석: 지역별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노후화 정도를 파악하는 연령별 현황이 지역에 따라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지역을 구분하여 연령별 장서구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앞선 분석에서의 마찬가지로 분석대상 도서관 423개관을 16개 시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도서관의 소장자료 중 가장 최신자료인 2005년 이후 발간자료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37.83%였으며, 대구가 37.72% 그리고 울산이 34.50%로 나타났다. 소장자료 중에서 2000-2004년 자료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전북의 45.6%, 대전의 44.30%와 비교

가 안될 만큼 54.2%로 압도적이다(표 13 참조).

소장자료 중 2000년 이후 발간자료인 최신자료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79.97%, 울산 76.65%, 대구 75.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장자료 중 1990년 발간자료의 비율은 경기도 40.13%, 충북 37.82%, 충남 36.97%, 그리고 대전 36.5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최신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천지역이다. 1980년대 발간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지역은 충북(8.40%)으로 나타난 반면, 소장비율이 낮게 나타난 지역은 울산(1.50%), 전남(1.67%), 인천(2.68%)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연령별 현황: 지역별

지역	구분	1980년 이전	1980-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년 이후	기타(불명)
서울(n=47)	장서수	2,099	7,652	10,360	16,854	30,259	13,593	191
	%	1.55	6.00	9.26	18.28	42.14	22.47	0.31
부산(n=23)	장서수	1,752	6,320	7,268	14,165	27,198	14,346	191
	%	1.47	6.67	8.66	19.09	42.84	21.13	0.32
대구(n=12)	장서수	1,234	4,174	7,728	9,139	24,592	16,608	160
	%	0.91	3.51	8.46	11.29	37.85	37.72	0.27
인천(n=10)	장서수	430	2,958	5,652	8,183	37,868	15,782	154
	%	0.65	2.68	5.44	8.88	54.20	27.94	0.22
광주(n=7)	장서수	1,884	3,669	14,200	18,012	21,179	16,824	124
	%	2.20	3.12	13.61	17.62	33.91	29.37	0.16
대전(n=12)	장서수	1,123	5,689	11,535	13,275	21,212	8,812	111
	%	0.63	3.45	12.87	23.72	44.30	14.86	0.16
울산(n=5)	장서수	133	1,156	4,810	10,342	25,546	12,418	126
	%	0.18	1.50	6.45	14.89	42.15	34.50	0.33
경기도(n=66)	장서수	616	3,531	8,356	14,538	11,380	3,568	116
	%	0.70	4.23	13.90	25.46	34.20	21.29	0.22
강원도(n=37)	장서수	450	2,611	4,606	7,529	14,427	6,743	32
	%	0.75	4.56	10.40	19.35	39.79	25.05	0.10
충북(n=20)	장서수	1,169	4,703	7,557	9,267	15,509	5,529	86
	%	1.72	8.40	16.05	21.77	36.75	15.09	0.23
충남(n=36)	장서수	245	2,380	5,648	10,133	16,678	5,263	74
	%	0.56	5.29	14.67	22.30	40.39	16.59	0.21
전북(n=24)	장서수	643	2,252	3,797	5,903	13,494	4,552	62
	%	0.93	4.19	8.00	13.44	45.16	28.12	0.16
전남(n=32)	장서수	127	745	3,502	4,366	9,111	5,212	41
	%	0.47	1.67	7.09	10.65	42.14	37.83	0.15
경북(n=39)	장서수	363	1,879	3,652	6,122	11,604	5,362	43
	%	1.32	5.13	11.02	18.56	41.53	21.67	0.13
경남(n=37)	장서수	228	1,473	3,475	7,051	17,620	11,289	90
	%	0.43	3.18	7.13	14.66	42.99	31.41	0.20
제주(n=16)	장서수	307	2,185	5,334	7,916	11,063	5,121	36
	%	0.73	4.95	12.28	23.17	31.03	27.75	0.10
전체(n=423)	장서수	761	3,391	6,386	10,266	17,363	7,994	98
	%	0.93	4.57	10.71	18.77	40.19	24.75	0.20
최고-최저(%)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주제별 연령별 실태조사를 통해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KOLIS-NET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 현황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주제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KDC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소장자료현황은 문학(800)이 37.87%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과학(300)은 16.92%로 그 뒤를 이었는데, 전체 소장자료 중 이 두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54.79%로 나머지 8개의 주제를 합한 것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은 도서관의 운영주체에 따라서도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는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출판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의 소장자료의 규모별 분석에서는 대규모와 중규모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사회과학(300)과 기술과학(500)의 비중이 높은 반면, 소규모 도서관은 문학(800)의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문학(800)의 비중이 수도권과 광역시의 도서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의 노후화 정도를 분석에서는 2000년 이후 발간된 자료의 비율이 64.9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최신자료라 할 수 있는 2005년 이후의 소장자료도 24.75%를 차지한 반면, 1980년 이전에 출판된 자료의 소장비율은 5.5%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비교적 최신성 유지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충족에는 노력하고 있지만, 자료의 전송 및 보존의 역할에는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공공도서관의 연간 자료 증가율이 5-6%이고, 장서공간의 부족을 감안한다면, 공공도서관의 제적대상 자료가 출판년이 오래되어 활용도가 낮은 1980년 이전 자료에 집중된 결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소장자료의 노후화 정도를 운영주체별로 보면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노후화 정도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역사가 더 긴 사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별로는 대규모와 중규모 도서관에 비해 소규모 도서관이 최신자료

를 소장한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남, 울산, 대구가 2000년 이후 발간된 최신자료의 소장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전 자료의 소장비율이 높은 지역은 충북과 경기였다.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은 장서의 품질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예산, 인력, 시설 등 기본 요건의 부족이라는 악조건에 속에서 합리적인 장서관리를 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주제별 현황과 노후화 정도를 나타내는 기초데이터는 향후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제도를 확립해 나가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주제별로 혹은 연령별로 보다 세분화된 조사가 수행되지 않아 지역별 특성화 정책이나 보존서고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산출할 수 없었던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참고 문헌】

- 류인석, 1991. 『한국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박은자, 2006. 공공도서관의 특수장서 현황 조사연구: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79-101.
- 안채현, 2002. 『대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장서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C대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유재욱, 2003. 대학도서관의 디지털장서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4(1): 123-140.
- 윤희운, 2005. 디지털 장서관리의 패러독스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4(1): 5-24.
- 이선희, 유수현, 2008. 국내외 사례비교를 통한 디지털장서 개발정책 동향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125-147.
- 이란주, 2005. 도서관장서개발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203-224.
- 장덕현, 2007. 과학기술분야 정보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107-124.
- 조찬식, 2008.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에 관한 연구. 『정보관

- 리학회지』, 25(3): 159-178.
- 한국도서관협회. 2007. 『한국도서관연감 2007』.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Gill, Phillip 2002.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 라인』. 장혜란 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Hazen, Dan D. 1995.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in the Information Ag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6(1): 29-32.
- Van Zijl, Carol. 1998. The Why, What, and How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South African Journa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66(3): 99-106.
- Evans, G Edward. 2000.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 4th ed.* Greenwood: Libraries Unlimited.